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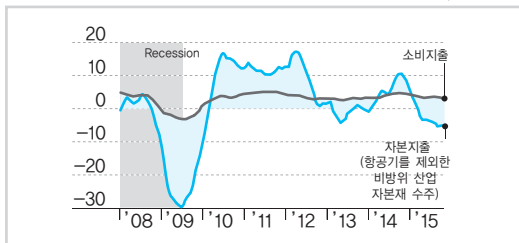
최근 미국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과 향후 전망

금융동향센터 (3705-6376)

최근 미 달러 강세와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른 기업수익성 악화, 원자재 가격 약세, 저임금의 노동공급 환경 지속 등과 같은 이유로 미국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기피 현상이 두드러짐. 한편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보유한 현금을 신규 설비투자에 쓰지 않고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가 지지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내년에도 시리아발 불안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투자가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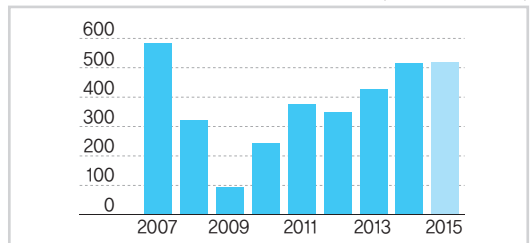
- 최근 미국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기피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미국 경제 성장엔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미국 상부무(Department of Commerce)에 따르면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2.2% 상승에 그쳐 지난 6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 또한 기업의 자본지출 계획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지표인 비방위산업의 자본재수주(항공기 제외)는 2015년 들어 10월까지 전년동기대비 3.8% 하락함(<그림 1> 참조).
 - * 전체 미국 경제 활동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지출 증가율은 통신 서비스와 공공재 소비의 부진으로 3.0% 상승에 그침.
 - 경제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 감소가 미국 경제가 2%대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함.
 - 최근 미국 경제인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이 미국 주요 기업 CEO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5년 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67.5로 전분기대비 6.6p 하락하여 올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함(50 이상시 경기확대가 기대됨을 의미).
 - * 또한 이번 조사에서 CEO의 26%는 향후 6개월 동안 자본투자를 줄일 것으로 응답함.

<그림 1> 미국 자본지출 및 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Department of Commerce

<그림 2>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주 : 매년 3개 분기(1~9월) 매입규모임.
자료 : Birinyi Associates



- 한편 미국의 대다수 기업들은 올해 들어 보유한 현금을 신규 설비투자에 쓰지 않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을 활용하여 주가를 지지하거나 올리는 데 주로 사용함.
 - 시장조사업체인 버리니 어소시에이츠(Birinyi Associates)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까지 미국 기업들은 5,167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였는데 이는 2007년 이후 최대 수준임(<그림 2> 참조).

-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미 달러 강세와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 원자재 가격 약세, 저임금의 노동공급 환경 지속, 인수합병(M&A) 등이 지적됨.
 - 미 달러 강세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2015년 3분기 미국의 기업이익은 2조 1,0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하여 2009년 2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가 투자부진으로 이어지게 됨.
 - * 미국 기업이익 추이(단위 : 십억 달러) : 2,135(2014.Q4) → 2,012(2015.Q1) → 2,083(2015.Q2) → 2,060(2015.Q3)
 - * 미국 기업들의 수익 감소는 특히 해외 수익 감소에 기인하는데 동 기간 미국 내 수익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한 반면 해외에서의 수익은 12.2% 감소하였음.
 - 2015년 3분기 중 에너지, 서비스 등 전 업종의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약세로 특히 광업 및 원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46% 급감하였고, 농업 부문의 기업투자도 42% 감소하였음.
 - 또한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수년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값비싼 기계를 도입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를 기피하도록 작용함.
 - *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5.0%까지 낮아졌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7년, 4.4%)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2015년 3월 크래프트(Kraft Foods Group Inc.)와 하인츠(H.J. Heinz Co.)가 합병하여 만들어진 크래프트하인츠(Kraft Heinz Co.)는 15억 달러 규모의 비용절감을 위해 11월초 북미 지역 공장 7곳을 폐쇄하였음.
 - * 소매, 제조, 에너지, 서비스 등 전 업종에 걸쳐 투자축소와 비용절감 계획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는데, 대형 백화점 체인업체인 메이시스(Macy's)는 내년초 점포 35~40개를 정리할 예정이며, 디젤엔진 제조사인 커민스(Cummins)는 해외 판매 저조로 북미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로 함.

- 대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016년에도 시리아발 불안, 테러리스트 공격 우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미 대선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투자가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함.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그레고리 다코(Gregory Daco)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신규로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에 대한 투자기여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성장세 둔화 추세를 더 오래 연장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KIF**